

# 근세 일본의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등장과 선교사의 무역개입을  
중심으로-

이 덕 훈\*\*

(e-mail: ldukhoon@hanmail.net)

---

## 目 次

---

- I. 시작하는 말
  - II. 선행연구와 연구범위
  - III.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동방무역의 진출
    - 1. 동방무역의 선구자 포르투갈의 향료무역
    - 2. 네덜란드의 등장과 동방무역
  - IV 근세일본에서의 서양과의 접촉
    - 1. 노부나가의 서양문화의 호기심과 그리스도교의 증가
    - 2. 다카야마우콘과 히데요시의 파테렌 추방령
    - 3. 도쿠가와 시기의 나가사키무역과 예수회의 개입
  - V. 예수회 선교사의 2개의 얼굴-성직자와 무역인
    - 1. 재무담당신부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의 역할
    - 2. 재무담당신부 프로쿠라도르의 무역개입
  - VI. 맺는말
- 

## I. 시작하는 말

일본과 포르투갈의 접촉은 1543년 포르투갈 무역선이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한 이후 1639년의 포르투갈船 來港禁止 의 봉서발령에 이르기까지

---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확충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제 경영학

96년간이라 하겠다. 복서(Charles. R Boxer) 는 사비에르가 일본의 薩摩(사츠마)에 도착한 1549년을 크리스찬 세기의 시초로 보고 있다.<sup>1)</sup> 따라서 처음으로 일본에 서양문물을 전래한 것은 예수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카오(포르투갈)-나가사키무역은 1571년 이후 1639년의 70년 정도의 기간을 지칭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1571년 나가사키(長崎)항구가 포르투갈에 개항되면서 무역이 시작되었다. 이 해부터 나가사키는 포르투갈선의 정기기항지가 되었고 1580년에는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에 의해서 예수회에 기증되어 포르투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7년 후인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선교사추방령을 발포하였고 다음 해인 1588년에는 예수회의 교회령이었던 나가사키를 히데요시의 직할령으로 하였으나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은 계속되었다.

1603년의 에도(江戸)막부성립 후에도 나가사키(長崎)에서의 무역은 중요시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나가사키를 막부직할령으로 정해, 나가사키 부교를 두어 감독하게 했다. 16 세기 후반의 포르투갈선에 의한 독점적인 무역체제는, 에도 막부에 의한 슈인센(朱印船)무역선 제도의 개시나, 중국선의 무역의 증가 그리고 네덜란드의 등장과 히라도(平戸)를 통한 무역의 개시 등에 의해서 점차 쇠퇴해 간다. 또한 1636년에는 막부의 키리시탄 금제의 강화에 의해서 나가사키에 데지마(出島)가 구축되어져 포르투갈인은 여기에 격리되었다. 그리고 3년 후의 1639년에는 포르투갈선의 일본의 출입이 금지되어 70년간 계속된 마카오-나가사키(포르투갈) 무역은 종료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마카오를 거점으로 나가사키로 통하는 생사의 무역 과정을 살펴보고 이시기에서의 일본에서의 포르투갈의 예수회의 선교와 무역의 발전과 종교박해 등의 과정을 분석해본다. 특히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등장으로 마카오의 생사무역의 독점이 위태해지는 상황과 예수회 포교를 목적으로 생사무역에 관여했던 선교사의 개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범위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포르투갈과 동방무역의 진출과 갈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제1절에서는 동방무역의 선구자 포르투갈의 동방무역의 발전배경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의 설립과 동방무역의 진출과정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근세일본에서의 서양과의 접촉에 대해 제1절

1) C.R. Boxer는 그의 저서 일본의 크리스찬 세기(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에서 사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한시기를 그 시초로 보고 있다. Charles Ralph Boxer.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에서는 노부나가의 서양문화의 호기심과 그리스도교의 증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진출과정과 포르투갈의 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절에서는 히데요시의 종교와 무역에 관한 갈등배경과 키리시탄 영주인 다카야마 우콘의 등장과 파테렌 추방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제3절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의 생사무역에서 등장한 팡카다(Pancada)가격과 이토와푸제도(糸割符制度)의 도입, 생사무역에서의 예수회 신부의 무역개입에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예수회 선교사의 두 개의 얼굴 즉, 성직자와 무역인 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에서의 재무담당신부인 프로쿠라도르(Procurado)의 역할과 무역개입에 분석하였고 제6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와 연구범위

### 1.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에 관한 선행연구

근세 일본에서는 중국의 생사(生糸)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일본의 권력자들은 마카오와의 교역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 초기에는 종교를 묵인하고 그들의 존재를 자발적으로 받아 들였다. 비록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두 통치자들 모두 선교사의 포교를 일본통치권과 그들이 새로 취득한 권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지만 둘 다 생사(生糸)무역으로부터 축적되는 이익을 위해 종교적 위협을 기꺼이 참았다.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는 생사 무역이 없었다면, 일본과 서양 사이의 초기의 무역관계는 매우 짧았을 것이고 96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신부)들도 실제로 생사무역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찰스 복서( Charles Ralph Boxer)는 일본제품보다는 중국의 생사나 비단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권력층의 중국의 비단수입을 원했으며 이에 대한 지출로서 일본산 은의 교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매년 한두 번 갈레온船을 통해 600,000쿠루사드(Cruzado)의 일본산 銀이 거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플린과 하랄데스( Dennis O. Flynn; Arturo Giraldez)는 17세기의 은과 비단의 교역으로 알려진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시기에 등장한 마카오-나

2) Michael. Cooper, The Mechanics of the Macao-Nagasaki Silk Trade, Monumenta Nipponica, Vol.27, no.4, 1972, p.423. Sophia University,

3) Charles Ralph Boxer, The Great Ship from Amacon - Annals of Macao and the Old Japan Trade, 1555-1640, Lisbonne, Centro de Estudos Historiées Ultramarinos, 1959

가사키무역과 이 무역이 종료되는 1639년 이후의 마카오의 생존 항로이며 생사연결로인 마닐라-마카오무역에 대해 논하였다. 4)

조앙 파우로 (Oliveira e Costa Joao Paulo)는 1597년부터 1617년까지의 마카오와 나가사키의 무역을 연구를 하였는데 이시기의 마카오-나가사키 무역로를 중심으로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파테렌(선교사)추방령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등장배경과 그이후의 무역과 종교에 대한 변화를 논하였다. 5)

다카세(高瀬 弘一郎)는 일본 예수회의 포교에 대한 경비의 조달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으나 가장 주된 방법은 마카오의 생사(生糸)를 취급한 무역이었으며 이 수입이 교회경비의 2/3를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그리고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의 총거래액과 생사의 거래량, 그리고 생사가격을 년도별, 국가별 즉, 스페인, 포르투갈 화폐와 네덜란드화폐와의 가격을 비교 하여 당시의 국제적 흐름으로서의 생사와 은을 비교 설명하였다. 7)

토조( Natália Tojo)는 일본으로부터 추방되는 포르투갈무역에 대해 네덜란드선원의 눈으로 인식된 상황, 즉, 무역과 종교를 세트로 교역을 했던 포르투갈과는 달리 조용히 무역만 했던 네덜란드의 입장을 설명하였다.<sup>8)</sup>

구리하라(栗原福也)는 네덜란드동인도 회사가 국제적 상품으로 등장한 생사를 아시아지역에서 생사를 대량으로 매입했을 뿐 아니라 서유럽사회에서도 판매를 위해서 포르투갈과 경쟁을 벌여 네덜란드동인도 회사의 주요상품으로서의 생사무역에 대해 설명하였다.<sup>9)</sup>

프탁(Roderich Ptak)과 신용철은 1513년부터 1640년간의 포르투갈의 극동무역은 일본 권력층의 가톨릭의 수용반대로 1597년, 1613년, 1616년 1636년의 그리스도교 탄압으로 이어져 비단의 수용은 증가하였으나 생사무역은 위협의 기로에 있었으며 종교보다는 무역만 일관했던 네덜란드에게 점차 밀려 마카오 무역은 쇠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4) Dennis O. Flynn; Arturo Giraldez, Silk for Silver: Manila-Macao Trade in the 17th Century, Philippine Studies vol. 44, no. 1 (1996): 52 - .68

5) João Paulo Oliveira e Costa. A ROUTE UNDER PRESSURE. Communication Between Nagasaki and Macao. (1597-1617). New University of Lisbon.

6) 高瀬弘一郎著 『キリシタン時代の貿易と外交』、p.328、八木書店、2002.

7) 高瀬 弘一郎, マカオ=長崎間貿易の総取引高・生糸取引量・生糸価格 『社会経済史学』 48卷 1号, 社会経済史学会, 1982年 5月. pp51-84.

8) Natália Tojo, THE Anxiety of the Silent Traders. Dutch perception on the Portuguese banishment from Japan. Bulletin of Portuguese Japanese Studies, Universidade Nova de Lisboa, 2000, pp111-128.

9) 栗原 福也, 連合東インド会社と生糸, 『史論』 35, 東京女子大学 1982 pp40-55.

10) Roderich Ptak, 신용철, 포르투갈 극동무역의 성쇠(成衰) - 1513~1640년간 마카오와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사연구』, 22집, 동양사학회, 1977, pp151-155.

나카다(中田易直)는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의 주요상품인 생사(生糸)는 매년 16-20만斤 정도로 한정 수입되어 포르투갈은 5배-10배의 이익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생사의 독점적 이익을 저지할 목적으로 에도막부는 교토·사카이·나가사키의 상인에 이토와쯔 나카마(糸割符仲間)를 결성시켰다<sup>11)</sup>고 주장하고 있다.

알바레스 탈라드리즈( Jose Alvarez-Taladriz) 는 포르투갈의 일본과의 생사교역은 「마카오에 거점을 두는 포르투갈의 무역조합인 아루마상계약(armação contract)은 일본에로의 생사의 연간 수출량을 1,600 피컬로 한정한다는 1610년의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에서는 이토와쯔(糸割符)가 생성되고 주요거래는 팡카다(Pancada)로 불리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sup>12)</sup>

와카스치(若土正史) 는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방해로 본국의 자금공급이 끊어져 지금까지의 중국-일본과의 생사를 중심으로 삼각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포르투갈 상인들은 그 자금의 대부분을 일본의 거상들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나게카네(投銀)라고 주장하였다.<sup>13)</sup>

마즈다케(松竹秀雄)는 일본상인들이 17세기초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서양의 Respondentia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침몰, 해적 등의 포획으로 인해 무역선이 귀항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무사히 귀항한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이를 일본형의 投銀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상술한 연구들을 보면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 찰스 복서( Charles Ralph Boxer), 플린과 하랄데스( Dennis O. Flynn; Arturo Giraldez)는 은과 비단의 교역을 중심으로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을 보았으며 조앙 파우로(Oliveira e Costa Joao Paulo), 다카세(高瀬 弘一郎)등은 일본예수회의 포교에 대한 경비의 조달로서의 생사 무역이었음을 가톨릭교회 사료중심으로 접근하였다. 토조( Natália Tojo), 쿠리하라(栗原福也), 프탁(Roderich Ptak)과 신용철 등은 포르투갈의 독점무역이었던 생사무역이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등장으로 마카오무역은 쇠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카다(中田 易直), 알바레스 탈라드리즈( Jose Alvarez-Taladriz)등은 팡카다(Pancada)의 일괄매각방식에 대응하

11) 中田 易直, 糸割符仕法の起源, 『中央史学』, 創刊号, 中央大学文学部, 1977, pp3-8.

12) Jose Alvarez-Taladriz, マカオ・長崎間貿易船のアルマサン契約に関する一六一〇年の資料 野間一正訳, 『キリシタン研究』 第12輯, キリシタン文化研究会, 1967

13) 若土正史, ポルトガルにおける大航海時代の海上保険と日本, 『海事交通研究』 62巻, pp83-92, 2013 山県記念財団

14) 松竹秀雄, 朱印船時代とそれ以後の長崎の海外貿易 (1). 『経営と経済』, 69巻(2), pp.168-169, 1989年 9月. 長崎大学経済学会

기 위해 이토와투(糸割符)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무역사적으로 접근하였다. 와카스치(若土正史) 마츠다케(松竹秀雄) 등은 보험 또는 투기적 접근으로서의 나가카네(投銀) 즉, 포르투갈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마카오-나가사키무역과 이에 투자한 일본상인들을 연구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이 노부나가, 히데요시, 도쿠가와시대의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을 글로벌화의 초기단계로서의 은과 비단의 교역, 교회사료 중심적 접근으로서의 생사무역,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등장, 팡카다(Pancada)와 이토와투(糸割符)등의 상업사적 접근, Respondentia와 투은 등의 보험학적 접근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근세일본의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이 어떻게 등장, 발전하였으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경쟁에서 일본이 어떻게 생사무역에 접근하였고 파테렌(선교사)이 생사무역에 접근하게 된 배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 2. 연구의 범위

1570년대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1571년에 시작된 마닐라 갈레온무역과 1571년에 개항된 나가사키항구는 마카오(포르투갈)-나가사키(일본) 무역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을 연결시킨 것은 1570년대에 시작된 중국의 일조편법(一條鞭法)이었다.<sup>15)</sup> 일조편법이란 여러항목으로 되어 있던 세금제도를 하나로 정비하여 銀으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제도로 1580년대에는 전 중국이 이 제도로 움직이는데 이는 은의 세계화로 이어지며 유럽과 중국, 인도, 일본 및 동남아는 銀으로 무역을 하게 되는 글로벌화의 초기단계를 이루게 된다.

이시기의 동서양의 무역의 하나인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무역, 포교 그리고 문화적소통의 상호관계가 혼합된 복합적요소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요인은 중국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사이에 이뤄진 국제적인 정치경제적인 교역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16세기와 17세기에 마카오와 나가사키무역은 일본인과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포르투갈인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무역의 주체는 생사(生糸)였으며 상업적인 중요성 그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50년대 부터 마카오와 일본무역은 성립되지만 1571년의 나가사키개항으로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은 꽃을 피우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포르투갈과 일본의 총포 무역기(1543년-1582년)와 히데요시의 파테렌추방령과 무역기(1582년-1598년) 도쿠가와와의 등장과 키리시탄 탄압기(1598-1640)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15) 이덕훈, 스페인 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권4호, 2014,11,p252

### Ⅲ.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동방무역의 진출

#### 1. 동방무역의 선구자 포르투갈의 향료무역

1497년 포르투갈 왕 마누엘 (Manuel) 1세의 명을 받아 바스코 다 가마 (Vasco da Gama)는 리스본을 출항하여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1498년 5월 20일 인도의 캘리컷(Calicut)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향신료를 위해(christos e especiarías!)”라는 표어로 그리스도교 전도와 향신료무역을 위해 이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로써 포르투갈이 인도무역을 독점하는 길이 열렸다. 이 항로는 ‘인도 항로’라 불렸으며 유럽인이 아시아에서 활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sup>16)</sup>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 몇백년 간 향료 무역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15세기 말에 베네치아에 입하하던 향료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하였다. 예를 들면, 1497년까지 후추(胡椒)가격은 1 hw 당 42-48 두카트(ducat)였는데 1499년에는 2배가량의 80 두카트, 1500년에는 130 두카트까지 급등하였으며, 정향(丁香)과 육계(肉桂)와 육두구(肉豆蔻) 등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sup>17)</sup> 15세기 말의 이른바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아시아 진출이 시작되었는데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남의 후추해안으로 불렸던 말라바르 해안(Malabar Coast)으로 부터 대량의 향신료를 를 갖고 돌아가면서 베네치아의 향료무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해외진출은 포르투갈 왕실의 생존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1507년 무역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된 왕실의 직속기관인 카사 다 인디아 (casa da india: 인도상무원)가 설립되어 향료를 취급하는 인도관, 금을 취급하는 미나(mina)<sup>18)</sup>관, 노예를 취급하는 노예관의 3부문으로 나뉘어져 관리되었다. 1508년 네덜란드의 안트워르펜(Antwerpen)에 카사 다 인디아의 대리점을 배치하여 유럽지역의 향신료를 취급하게 된다. 이에 의해 유럽의 상인들은 향신료의 주문처를 베네치아에서 안트워르펜(안트위프)으로 점차 바뀌어가면서 베네치아의 향신료무역은 쇠퇴해간다.

카사 다 인디아 의 역할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지에 산재해 있는 상관에서 보내진 향료, 금, 사탕 등의 상품을 수집하여 프랑스의 플랑드르 상관으로 보내져 유럽의 각 시장에 매각하여 대금을 은으로 받아 이를 각지의 상관에 다시 보내지는

16) 이덕훈,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일본문화학보』 제62집, 2014년 8월,p264.

17) V. M Gordino,1953, le reperi venetian et egyptien et la route du cap 1496-1533, in Eventail del' histoire vivante , hommage a lucien febre 2, 1953,p289 과 ヴァスコ・ダ・ガマのインド航海記,大航海時代叢書, 第1 『航海の記録』,岩波書店 ,1965,pp450-457.

18) 지금의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엘미나 를 지칭함.

집산지역할을 포함한 소위 해외무역의 중추기관이었다.<sup>19)</sup>

아사다 미노루(淺田実)는 카사 다 인디아는 재분배 기업체, 즉 군사력의 이용과 지배를 통하여 지배하의 상품(후추, 향료)을 집합시켜 이것을 상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기관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이런 이유로 포르투갈의 인도 총독 알부케르케(Alfonso de Albuquerque)는 1505년 실론(Ceylon)를 점령한 후, 1510년 인도의 고아(Goa)와 1511년에는 말레이(Malay) 반도의 말라카(Malacca)를 점령하여 동방무역의 향료무역을 장악했다. 1512년, 알부케르케는 향료제도로 불리는 몰루카(Moluccas) 제도에 도착해 이곳 사람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육두구와 정향(丁香)무역을 독점하여 곧 베네치아 향신료무역을 능가했다.<sup>21)</sup> 1515년에 포르투갈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등의 식민지를 쟁탈하면서 향료무역에 앞장섰고, 16세기에는 세계의 정향 무역을 지배했다. 포르투갈이 무역면허증과 통행증에 해당하는 카르타즈(cartaz) 제도를 후추를 나르는 선박에게 주면서 카르타즈의 수를 제한하며 무역을 독점하였다.<sup>22)</sup>

16세기의 포르투갈의 향료무역은 년도 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03년 리스본의 후추입하량은 15,000퀸탈(quintal: 1,500톤)이었고,<sup>23)</sup> 1504년부터 1509년까지는 다소 뒤쳐진 12,000퀸탈을 기록하였지만<sup>24)</sup> 12년 뒤인 1515년-1518년에는 20,000-30,000퀸탈을 그리고 약 50년 뒤인 1550년대 후반에는 30,000-40,000퀸탈로 성장하였다.<sup>25)</sup> 16세기 후반(1587-88년)이 되면서 유럽의 향신료수요는 배로 증가하여 인도산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충하기위해 등장한 것이 동남아시아의 후추였다.<sup>26)</sup>

동방제국기(Suma Oriental)의 저자 토메 피레스(Tome Pires)는 포르투갈의 아시아 점령 후 얼마 되지 않아 1511-1512년과 1512-1515년에 말라카에 체류 한 기록 속에 당시의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각지의 후추의 생산과 무역에 관한 귀중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말라바르(Malabar)지방의 연간 후추생산

19) 金七 紀男, 『ポルトガル史』, 増補版. 彩流社 2003, pp104-105

20) 淺田実, 『商業革命と東インド貿易』, 法律文化社, 1984, p61

21) 増田義郎, 『ポルトガルとアジア(1)』 『国際関係紀要』 第8巻第2号, 亜細亜大学国際関係研究所, 1999. pp35-37

22) 김동엽,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1권2호, 2011, pp22-23.

23) 1 퀸탈은 100kg

24) Jan Kieniewicz (1969), "The Portuguese Factory and Trade in Pepper in Malabar during the 16th Century,"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6: 61-84.

25) 山田憲太郎, 『東亜香料史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6, p259.

26) Anthony Rei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n: Expansion and crisis, xv., 390 pp.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9-10.

량은 약 3,750톤 정도의 후추가 생산되고 있었다고 추정하며<sup>27)</sup> 이 생산량은 세계의 후추 생산량의 4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sup>28)</sup> 또한 16세기말의 네덜란드 항해가 린스호텐(J.H.van Linschoten)은 1580년대 당시의 포르투갈 무역선에 의한 후추 연간 수송량을 2,000톤 내지 2,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sup>29)</sup> 말라바르지방의 2/3는 포르투갈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로 향하는 포르투갈은 고아(Goa)를 시발지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품과 인도의 제품을 적하하여, 말라카를 경유하여, 마카오로 향했다. 포르투갈인은 1543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의 일본도착 이래 14년이 지난 1557년에 마카오의 거주권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자 마카오를 기지로 일본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여 많은 포르투갈선이 1571년에는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이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은 아시아진출 초기부터 이지역의 무역을 원칙적으로 국왕의 독점적경영하에 두었지만 1550년경부터 對中國 및 일본무역을 국왕 또는 고아총독이 임명하는 항해와 무역의 총책임자로서 전권대사격인 카피탕 모르 (capitao mor)의 통제하에 운영하기로 하였다.<sup>30)</sup> 카피탕 모르는 포르투갈의 왕으로부터 임명되어 무역의 이익을 관리하여 마카오체류 중에는 마카오 최고의 행정권, 사법권을 장악하고 일본체재 중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포르투갈인 에 대해 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일본에 대해서는 공사 겸 영사의 위치에 있었다.

포르투갈은 아시아지배의 중심지로서의 리스본-고아- 말라카-마카오- 나가사키로 이어지는 정기항로가 이어지면서 마카오와 나가사키의 아시아무역은 카피탕 모르의 관할 하에 놓여 매년 600- 800톤의 대형범선이 거의 1척 또는 2척의 정크를 동반하여 일본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관례였다. 16세기 후반의 일본은 조선으로부터의 회취법(灰吹法)이라 불리는 銀정련기술도입으로 은을 생산하여 세계유수의 銀생산국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의 비단과 교역된 銀은 매년 2만-2만5천 Kg에 달했다고 한다.<sup>31)</sup> 이 액수는 점점 상승하여 17세기 초에 이르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銀은 연간 15만kg 까지 상승했다고 추정되고 있다.<sup>32)</sup>

17세기의 일본의 銀 생산량은 세계의 銀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

27) 「Tomé Pires, "Suma Oriental" トメ・ピレス 『東方諸國記』, 生田滋・池上岑夫・加藤栄一・長岡新治郎譯注(大航海時代叢書),p182.

28) 山田憲太郎, 『東亞香料史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6, p242.

29) Jan Huygen van Linschoten, Itinenan voyage of schipvaertnaer Dost ofle PortzrgaelS Indien, Amsterdam, 1596. 岩生涉沢、中村訳注 『リンスホーテン、東方案内記』大航海時代叢書Ⅲ、東京、岩波書店、1968年,p762

30) Charles Boxer, The Great Ship from Amacon. Annals of Macao and the Old Japan Trade, 1555-1640 (Lisbon:) Centro de Estudos Histicos Ultramarinos, 1959; pp8-11

31) 리스호텐 『東方案内記』 岩生成一・涉沢元則・中村孝志訳、岩波書店、大航海時代叢書 8,1968, p250.

32) 岩生成一,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1958,p329

량의 은을 생산하여 아시아의 은의 수출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銀생산은 포르투갈(마카오)을 나가사키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2.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의 등장과 동방무역

네덜란드는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설립되기 전인 1594년에 9명의 암스테르담 상인에 의해서 설립된 원격지 회사(원거리회사:De Compagnie van Verre:Voorby Capodi Bona Sperunza)가 있어 동양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9인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총독(stadthouder)과 연방의회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상업상의 특권을 받아 상선대(商船隊)를 조직하여 1595년에는 동인도를 출발하여 1597년에 귀항하였다.<sup>33)</sup> 1597년 말에는 암스테르담에서 新암스테르담 동인도회사(Nieuwe Compagnie te Amsterdam)가 설립되어 연방회와의 호란토 (Holland) 주회에서 각종의 특권이 주어지면서 상선대의 준비가 완료되면서 앞의 원격지회사(선구회사)와 합병되어 구회사(Oude Compagnie)가 설립된다.<sup>34)</sup>

이 구회사는 1598년초에 상선대를 파견함과 동시에 1600년에 이르기 까지 4회의 항해를 실행하였다. 또한 1599년 8월에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에게 중국과의 무역특권을 주어진 신 브라반트회사(Nieuwe Brabantse Compagnie)가 설립되어 1599년 말에 상선대를 보냈다. 그리고 1600년에 이르면서 구회사와 신 브라반트회사가 합병하여 암스테르담의 시정부로부터 동인도 무역독점권을 부여받은 연합암스테르담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 Compagnie te Amsterdam)가 성립되어 상선대를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 65척이 15개의 상선대로 나뉘어져 동인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서로 경쟁적이다 보니 동인도의 후추, 향료 등의 매입가격의 등귀와 암스테르담에서도 이들 수입상품의 관로가격의 하락세를 보여 네덜란드의 상업자본은 이익을 위해 동인도무역에 종사하는 각종의 기업을 합병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합병의 결과 세계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네덜란드(연합)동인도회사(VOC:Verenigde Oostindisch Compagnie)가 설립되었다.<sup>35)</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Verenigde Oostindisch Compagnie)는 1602년 3월 20일에 올덴바르네펠트(Johan van Oldenbarnrevelt)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출발되었다.<sup>36)</sup> 또한 정식으로는 네덜란드 의회(Staten-Genraal)로 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게 「특허」(Octrooi)가 주어진 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Octrooi)란,

33) 大塚久雄, 『株式会社發生史論』, 大塚久雄著作集〈第1卷〉, 岩波書店, 1969年, pp.334-335.

34) 이덕훈 .네덜란드의 동방무역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역할, 『경제연구』 20집, 한남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년2월, p26.

35) Kerry Ward, Networks of Empire: Forced Migration in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26-128.

36) 이덕훈 .네덜란드의 동방무역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역할, p25.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게 남아프리카 희망봉 동쪽의 모든 지역에 거래상의 독점권을 21년<sup>37)</sup>간 주어지는 것을 지칭하며 다른 의미로는 「특허회사」(Geoctrooieoer de compagnie)라고도 하여 이 「특허 회사」로 지정된 된 날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창립의 날이기도 한다.<sup>38)</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03년 2월25일 조호바루(Johor Bahru) 해안근처에서 포르투갈의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호를 나포했는데 네덜란드 국내가격으로 225만 골덴(gulden)이 넘는 거액의 생사가 적재해 있었다. 생사는 다음해인 1604년 여름에 암스테르담에서 경매에 부쳐졌는데 유럽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둬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생사시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39)</sup> 따라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성립 직후부터 생사는 향료와 함께 동방무역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7 세기의 최성기에는, 나가사키로부터 동남아시아, 인도 대륙, 페르시아까지 50개소 이상의 요새나 상관을 갖고 있었다.<sup>40)</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포르투갈 왕실주도의 카사 다 인디아와는 다른 어디까지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나가사키 데지마(長崎出島)와 교역을 하고 있던 주최는, 국가인 네덜란드가 아니고, 기업으로서의 동인도회사이며, 「네덜란드 상관장은 외교관은 아니고 기업의 최고경영자였으며 포르투갈의 거점인 마카오의 공격이나 대만 점거(1622년)로 나타난 것처럼 군대를 보유한 「무장商社」이기도 했다. 해양 대국으로서 빛났던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당시의 유럽 11개국의 보유하는 배에 필적하는 소유 선박 수(1만5천척)를 자랑하고 있었다.

1500년부터 1599년까지는 포르투갈이 705척을 아시아로 보낸 것에 비해 네덜란드는 65척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동인도회사 설립 후 인 17세기에는 1,770척으로 포르투갈의 약 5배로 증가하였다. 17세기의 동방무역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8세기에도 네덜란드의 선박수가 2,950척으로 17세기와 비교하여 67% 증가하였다. 전체유럽의 선박수인 6,691척의 44%를 차지하여 최대의 아시아무역국으로 등장하게 된다.<sup>41)</sup>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단지 아시아로부터 향신료나 생사와 은의 중계무역시스템이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보 교류의 회로이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목표는 향료 무역을 독점하는 것이었다.<sup>42)</sup> 이 목표를 달성할

37) 후에 21년 마다 갱신되어 사실상은 1799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독점권은 후에, 화폐 주조권, 군대, 사법, 행정에 대해 무제한하게 주어졌음

38) Wil O. Dijk, *Seventeenth Century Burma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34-1680*,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6.,p 58.

39) Kristof Glamann, *Dutch-Asiatic Trade, 1620- 1740.*, Copenhagen-The. Hague, 1958, p13.

40) 이덕훈. 네덜란드의 동방무역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역할,,p19.

41)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 A Millennial Perspective* Paris:OECD Publications, 2001. p.63.

수 있도록 네덜란드는 향료제도(몰루카제도: 말루쿠제도)로부터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을 쫓아냈지만 향료무역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게 되면서 1603년 이후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결국 마카오-나가사키무역에 등장하면서 아시아지역내의 무역에 진입하며 나가사키의 은과 마카오의 생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포르투갈은 케이프타운-고아-말라카-마카오등의 항구도시를 발전으로 성장했지만 1590년대에 발전한 네덜란드는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포르투갈의 항구도시를 하나씩 점거했지만 마카오만은 공격에 실패하여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1639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가톨릭포교를 두려워한 일본막부에 의해 포르투갈은 축출당하고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1641년부터 1859년까지 일본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무역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IV. 근세일본에서의 서양과의 접촉

### 1. 노부나가의 서양문화의 호기심과 그리스도교의 증가

일본과 서양과의 최초의 접촉은 1543년(天文12년) 8월 포르투갈 무역선이 가 고시마(鹿兒島)의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하여 조총을 전해준 것으로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처음 온 것에 관한 일본 측의 자료는 南浦文之의 鉄炮記<sup>43)</sup>이다.

1546년에도 포르투갈 무역선 3척이 사즈마(薩摩)에 정박(碇泊)한 기록<sup>44)</sup>을 보면 이 시기에 이들은 총포무역을 하려고 온 것으로 파악된다. 서양인과의 접촉은 총포무역으로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일본인에게 서양의 문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것은 그리스도교(가톨릭)와의 만남이었다.

1549년 8월 15일 프란시스코 사비에르(St. Francis Xavier)는 토레스(Cosme de Torres) 신부와 페르난데스(Juan Fernández) 신부 등 3인과 일본인 신자 야지로(弥次郎)를 포함한 7명의 일행(인도인, 중국인 봉사자 등)들과 일본 최남단 사즈마(薩摩)에서 표류하며 가톨릭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1년 뒤인 1550년 8월, 사비에르 일행은 히젠 히라도(平戸)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562년 요코세우라(横瀬浦)의 개항과 1563년 오무라(大村)의 영주 오무라스미타다(大村純忠)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교(가톨릭)가 큐슈의 서쪽지방

42) 이덕훈, 네덜란드의 동방무역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역할, p20.

43) 난포문시(南浦文之) (玄昌) 가 저술했음. 1607년에 다네가시마 히사도키(種子島久時)의 의뢰로 조부 다네가시마 도키다카(種子島時堯)가 처음으로 鉄炮를 받아들인 사적(事跡)을 기념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南浦文集』에 소장되었음.

44) 岡本良知 『長崎開港以前歐舶來往考』日東書院, 1932年, P13, 松竹 秀雄, 朱印船時代とそれ以後の長崎の海外貿易 (1). 『經營と經濟』長崎大學經濟學會 1989年 9月. p165.

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1564년에는 히라도(平戸)에 포르투갈 무역선이 정박했지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의 허가 없이는 입항할 수 없었다. 히라도의 영주인 마츠라 다카노부(松浦隆信)는 포르투갈 무역선의 입항을 재촉하지만 포르투갈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배격행위를 사과하고 교회의 건설을 승인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카노부는 이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sup>45)</sup> 즉, 다카노부는 무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인정한 것인데, 당시 전국다이묘의 영국(領国)경제에서 포르투갈과의 무역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포르투갈무역선의 입항후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묵인하면서 단기간 내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포르투갈상인이 갖고 온 화승총과 화약의 군수품입수는 영지쟁탈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 이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를 열심히 보호하고 스스로도 키리시탄(그리스도교 신자)이 된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 오토모 요시시게(大友義鎮)등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이익을 영국(領国)경영의 기본정책으로 한 키리시탄 영주였다. 분고(豊後) 1개국 영주였던 오토모 요시시게(大友義鎮)가 약10년 뒤인 1576년에는 5개국의 영주로 된 것은 뛰어난 군사력의 뒷받침인데 이를 지탱해준 것은 포르투갈의 총포무역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 포교와 세트르 이루어진 포르투갈무역은 근세 일본에서 이렇게 영주 중심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1568년 9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상경하면서 막부 본가의 혈통의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를 옹립하여 14대 征夷大將軍이 되게 만들었다. 1570년에 프로이스는 노부나가를 알현하여 포교허가를 얻고, 교토에 남만교회인 永祿寺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노부나가의 예수회 보호정책은 전국의 가톨릭교의 포교에 큰 영향을 끼쳐 신자는 급증하였다. 1581년의 일본인 예수회신자는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sup>46)</sup>

1571년에 나가사키 항구가 개항되면서 1571년부터 1640년간의 일본의 나가사키와 포르투갈의 마카오를 연결한 것은 비단과 은의 교역이었다. 1600년까지의 마카오-나가사키의 생사무역은 일본 측의 생사를 중심으로 한 영주들의 소비적 욕구에 의해 포르투갈의 독점적 이익을 암묵적으로 묵인하였다.<sup>47)</sup>

노부나가는 남만의 화승총(火繩銃)의 성능을 중시해, 1575년 나가시노 전투(長篠の戦い)에서는 3,000정의 조총을 이용해 당시 최강의 다케다 가츠요리(武

45) 루이스·프로이스 『日本史』 제25장, 東洋文庫.

46) 村上直次郎 訳 『耶穌會の日本年報』.第1輯 拓文堂, 1943, p33.

47) C.R. Boxer, South China in the Sixteenth Century (1550-1575)

: Hakluyt Society, Second Series: 106, pp179-181

田勝頼)의 기마대에 대승리를 거두면서 포르투갈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다.<sup>48)</sup> 또한 노부나가는 당시의 불교의 부패에 대한 분노, 특히 일향종(一向宗)에 대한 그의 증오는 대단했다고 한다. 우선 일향종과 노부나가와의 전투는 1570년 10월 11일부터 1580년 4월 20일까지 약 10년간에 이뤄지면서 종교로 인한 전쟁 때문에 일본의 통일이 늦어져서 초조해있던 노부나가는 전략적으로도 구 불교세력에 대응하는 참신한 새로운 종교를 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부나가는 일본의 불교승려가 결혼하고 아들에게 주지직을 세습시키며 종교적 권력과 세력이 커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남루한 복장으로 신앙만을 지키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렀다.<sup>49)</sup> 또한 노부나가는 갈레온 무역선, 지도, 조총 등의 새로운 무기 등을 높이 평가하여 키리시탄에 대해 매력을 갖게 되었고 포교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후원자가 되었다.

큐슈지역의 키리시탄 영주의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도 본인의 영지의 백성을 강제적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면서 영내의 절과 신사를 파괴했다. 오무라 스미타다는 키리시탄을 우대 하는 과정에서, 영내의 나가사키의 토지(현: 나가사키항구 주변부)와 모기(茂木)( 현: 나가사키시 모기마치)를 예수회에 기부까지 하였다. 스미타다는 1580년 4월27일에 예수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4개의 항목을 계약하며 나가사키를 예수회에 기증한다.<sup>50)</sup>

1. 예수회에 나가사키·모기(茂木)를 영구히 무상 증여한다.
2. 파드레(사제)가 선택한 사람에게 사형을 포함한 재판권을 준다.
3.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세, 정박세를 영구히 준다.
4. 다만, 포르투갈선 등이 항구에 입항하는 배로부터의 물품 수입세는 우리(오오무라)에게 유보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는 예수회령이 되면서 포르투갈령의 마카오와의 무역은 더욱 발전하였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계속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 2. 다카야마우콘과 히데요시의 파테렌 추방령

1582년 6월에 노부나가의 가신인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의 모반 (혼노지

48) 이덕훈,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p274.

49) 이덕훈, 대항해시대의 일본의 남만무역과 그리스도교, 『기독교문화연구』, 19집, 2014,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p20.

50) 이덕훈, 대항해시대의 일본의 남만무역과 그리스도교, p26

의 변: 本能寺の変)으로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사망하면서 권력은 히데요시에게 집중되어 히데요시의 천하가 된다. 1560년부터 1582년의 노부나가시기의 포르투갈인의 일본진출과 특히 교토에의 진출은 노부나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으므로 노부나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교로서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정착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sup>51)</sup>

히데요시의 집권기인 1584년 6월 포르투갈의 정크선이 마닐라에서 마카오로 귀환도중 히라도(平戸)에 정박하게 된다.<sup>52)</sup> 이 배에는 스페인의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신부가 승선하고 있었는데 히라도의 번주인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는 이들과 접촉 후 가톨릭포교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포르투갈이 아닌 새로운 강대국 스페인의 식민지인 필리핀 총독과의 수교를 요구한다.<sup>53)</sup>

이 시기의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 바뀌었으며 키리시탄을 묵인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정책을 계승해, 그리스도교 포교를 용인하고 있었다.<sup>54)</sup>

그러나, 큐슈 평정 후의 1587년 7월 24일, 치쿠젠 하코자키(筑前箱崎)에 체재하고 있던 히데요시는 포르투갈측의 통상 책임자이며 카피탕·모르인 도밍고스·몬테이로(Domingos Monteiro) 및 당시의 예수회 일본지역의 책임자인 코엘요(Gaspar Coelho)에 대해서 선교사의 퇴거와 그리스도교 선교의 제한을 표명했다. 소위, 파테렌(선교사:伴天連)<sup>55)</sup>추방령이라고 하는 키리시탄(切支丹, 가톨릭신자 : Cristão) 금교령을 공포 한다<sup>56)</sup>.

원래 히데요시의 큐슈 평정은 2년 전인 1585년 예수회의 일본 지역 구역장<sup>57)</sup>의 가스파르·코엘요(Gaspar Coelho)가 히데요시에 키리시탄 영주를 히데요시의 편으로 만들겠다고 진언하면서 실현된 것이었다. 오무라·아리마(大村·有馬) 등의 키리시탄 영주는 사츠마번의 시마즈에 수차례에 걸쳐 위협당하고 있었으므로, 예수회로서는 히데요시의 큐슈 공격은 키리시탄포교를 위해서도 더 바랄 나위 없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키리시탄 영주인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은 코엘요(Coelho)선교사의 지시를 따라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

51) Joao Paulo Oliveira e Costa, The Portuguese Presence in the Central Japan, 1560-1582. 日塾博司訳, 信長天下平定期の畿内におけるポルトガル人の動静(一五六〇~一五八二年) 『流通経済大学流通情報学部紀要』 1(1), 59-90, 1997-03

52) 이덕훈,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p 275.

53) 『長崎縣史』 藩政編.

54) 이덕훈, 대항해시대의 일본의 남만무역과 그리스도교, p23.

55) 포르투갈어로 padre를 말하는데 사제, 신부를 의미하고 사제직에 있는 성직자를 지칭한다.

56) 神田千里, 伴天連追放令に關する一考察 : ルイス・フロイス文書を中心に. 『東洋大學文學部紀要』. 2011, pp65-110.

57) 일본은 준관할구역이었고 코엘요는 예수회의 일본에서의 활동의 최고 책임자였다.

했다. 저항하고 있던 사츠마번의 시마즈는 1587년 5월 8일에 히데요시에게 항복하여 6월 7일에 히데요시는 하카타(博多)에 무사히 개선하였다. 일본전역을 거의 정복했던 히데요시는 큐슈마저 정복하였으나 큐슈각지를 이동하면서 많은 절과 신사(寺社)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과 이지역의 키리시탄 영주들이 선교사의 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선교사추방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키리시탄 영주의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은 본인의 영지인 다카츠키(高槻)에서 절과 신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영주를 통한 대량의 수세(受洗)가 진행되고 있었다. 58)

「우콘(右近)의 영지에는 1만4천명의 키리시탄이 있는데 그중 3,000 명은 금년에 키리시탄이 된 사람이고 다수의 절과 신사를 파괴하여 몇 개의 교회를 건립해서 6-7,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실지 다카야마 우콘이 파괴한 절과 신사는 다음과 같다. 濃味神社 磐手社神社 金龍寺 安岡寺 本山寺 本山寺 靈山寺 靈仏寺 善門寺 八幡大神宮 春日神社 神峯山寺 山田寺 護国寺 光松寺 高法寺 善福寺 등의 25개의 절과 신사가 파괴되었다. 59)

키리시탄 영주의 활약에 의해 큐슈 평정에는 성공하였지만 키리시탄 들에 의해 절과 신사가 파괴되고 있음을 안 히데요시는 키리시탄 영주인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에게 그리스도의 기교(종교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우콘이 이에 저항하자 히데요시는 키리시탄이 종교를 내세워 국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우콘(高山右近)을 추방하였다.

일본의 무사도는 주군에게 대해 맹목적인 충성이 본질인데 키리시탄 들은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 행동하고 단합하였으므로 무사도의 파괴자로 판단하여 키리시탄을 사교(邪教)로 보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히데요시는 본인의 주군이었던 노부나가가 불교종파인 일향종(一向宗) 때문에 심한 고충을 겪은 것을 보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 작용하였고 또한 서양종교의 이국 신부가 키리시탄 다이묘들을 모이게 할 정도의 종교적인 힘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키리시탄들이 자기종교를 앞세워 타종교의 종교시설인 신사와 절을 심하게 파괴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정치적 불안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8) 『十六・七世紀イエズス会 日本報告集』同朋舎出版, 1996.3-5.174号, p259.

59) 山下洋輔, 高山右近の寺社破壊に関する一考察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15卷 2号. 2008年3月.

### 3. 도쿠가와 시기의 나가사키무역과 예수회의 개입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8년에 사망하자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즉시 선린외교내지는 적극적인 평화 무역정책을 내세웠다. 슈인센(朱印船)제도<sup>60)</sup>를 정착화 하여 필리핀으로부터 교역을 요구해 온 스페인인과 우호적으로 접촉하여 멕시코(누에바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영국과도 무역을 원하였다.

막부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히데요시 정권이 발표한 선교사 추방령(1587년)을 파기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의 국가와 통상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일도 어려웠으므로 이 시기의 막부의 대외 정책은 그리스도교 국가와의 무역을 증시하는 자세와 그리스도교 금교(禁教)지향과의 2개의 기본방침의 미묘한 균형에서 막부가 취한 행동은 복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생사의 가격 형성에 대해서 바리냐노(Alessandro Valignano)의 「변박서 『弁駁書』(1598年1月)」에 의하면, 「생사는 중국에서는 피컬(picul)당 대체로 90 두카트(Ducat)로 매입해 일본에서 140 두카트로 팔리지만, 그중 10 퍼센트는 운임으로 3 퍼센트는 세금으로 지불해 공제되므로, 피컬(picul)<sup>61)</sup>당 약 121 두카트(Ducat)로 팔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2)</sup> 마카오와 일본에 있어서의 가격은 조금씩 변동하지만, 1625년의 예로는 133 두카트(Ducat)로 사서 200 두카트로 팔았다고 한다.

이에야스가 사실상 정권을 잡은 세키가하라의 전투(1600년)직후인 1602년에 입항한 포르투갈선의 적하의 구입 가격에 대해 일본인 상인과의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분쟁은 예수회측의 상인과 나가사키 부교와의 대립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에야스는 다이칸(대관:代官)의 데라자와 히로타카(寺沢広高)를 그만 두게 하고 무라야마도안(村山雪安) 등 키리시탄 5명에게 나가사키의 통치를 맡겨 중요한 문제는 나가사키 통역관의 로드리게스(João “Tçuzu” Rodrigues)와 예수회 일본 準관할구역장인 파시오(Francisco Pasio)와 상담하도록 명했다.<sup>63)</sup>

이러한 이에야스의 호의적 태도에 의해 로드리게스와 파시오도 적극적으로 생사무역에 가담하여 예수회는 나가사키의 통치와 무역 면에서 절대인 권력을 잡았다.

60)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부터 주인장(朱印壯)제도를 실시하는데 막부의 지배자인 쇼군의 주인장( 해외도항허기증)을 받아 해외교역을 하는 선박

61) 1피컬은 60-63kg

62) 高瀬弘一郎著 『キリシタン時代の研究』 岩波書店, 1977,p28

63) 小島幸枝 『長崎代官 村山等安 その愛と受難』 聖母文庫, 聖母の騎士社,2002, pp28-32.

포르투갈선이 나가사키에 기항하게 되는 1년전의 1570년경에 마카오에 아루마상(armação contract)이라고 하는 생사 수출 조합이 결성되어 일본에의 생사(生糸) 수출을 독점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각각 수출량의 몫(baque)이 있어 그 총수량은 1,600 피켈 이었다. 그 때문에, 일본에의 생사의 수출은 엄격하게 단속되게 되었다.<sup>64)</sup>

마카오의 생사는 조합원들이 공동 출하하는 수출규제 상품으로서 하나의 적하로서 정리되어 품목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사키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격 즉 팡카다(pancada)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마카오에서의 생사의 수출 경쟁을 눌러 일본에서의 생사의 매각가격을 비싸게 유지하면서, 마카오에 거류 하는 포르투갈의 상인들에게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증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막부는 포르투갈무역선의 생사거래에 일정한 틀을 제시하였다. 소위 이토와트푸(糸割符)라고 불리는 제도이다.<sup>65)</sup> 즉 1604년(慶長계이초 9년), 막부는 나가사키, 사카이, 교토의 상인들에게 조합형태인 이토와트푸나카마(糸割符仲間)를 결성시켜 이 세 도시의 유력 상인중 대표자를 선택하여, 이토도시요리(糸年寄)로 정하여, 이토도시요리는 우선 포르투갈무역선이 갖고 온 생사의 구입 가격을 결정하여 이것을 일괄 구입하여(생사의 독점적 수입권), 糸割符조합의 상인들에 배분, 판매하는 방법(독점적 도매권)으로 대응하였다.

에도 막부는 마카오의 수출 카르텔인 상술한바와 같이 아루마상 ((armação contract: 対日生糸貿易組合)에게 배워 수입 카르텔로서의 이토와트푸제(糸割符制)를 만들게 하고, 수입 가격을 교섭하여 수입가격에 의해 생사수요의 증대와 생사의 매입 경쟁을 제한하려고 했다. 여기서 정해진 가격은 팡카다 가격인 것만이 아닌 동시에 이토와트푸 가격이기도 했다. 단지, 수입 카르텔인 이토와트푸제(糸割符制)는 일본인의 수요의 증대로 부터 전면적으로는 제한하거나 기능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구매자로서 생사 수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와트푸조합이 형성된 것과 나가사키, 사카이, 교토의 세 도시의 이토와트푸 나카마(糸割符仲間)에게 각각 생사 인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던 점, 그리고 그 대표자로서의 이토와트푸도시요리가 가격 교섭하게 된 것과 여기서 정해진 가격으로 생사가 일괄구입 되면서 이토와트푸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생사의 수입 가격의 역제에 기여한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4) Jose alvarez-taladriz, 마카오·長崎間貿易船의アルマサン契約に関する1610年の資料,(野間一正訳)『キリシタン研』第12輯,キリシタン文化研究会, p370-374

65) 加藤栄一「成立期の糸割符に関する一考察」(貨月圭吾先生還暦記念会編『日本社. 社会経済史研究』近世編,1967, pp68-70.

1608년 11월, 마카오에 기항한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의 무역선의 선원과 포르투갈선인 테우스(Madre de Deus) 호의 선원과의 난투극으로 하루노부(晴信)측의 선원 약 60여명이 살해되면서 적하물건까지 약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위 테우스호 사건이다.<sup>66)</sup> 이에 하루노부(晴信)는 1609년 12월 12일, 나가사키로 생사무역차 방문한 테우스호를 공격하여 침몰시켜 버렸다.<sup>67)</sup>

하루노부는 테우스호 격침의 공적으로 옛 영토 회복을 시도하여, 주선을 부탁해 오카모토 다이하치(岡本大八)에게 6,000兩이 넘는 고액의 금품을 보냈다. 이것이 「오카모토 다이하치(岡本大八) 事件」의 발단이 되었다. 결국 막부로부터 다이하치(大八)는 1612년 3월에 화형에 하루노부는 할복(切腹)을 명받았다. 하루노부도 다이하치도 키리시탄 이었고 불순한 의도로 나라의 기강을 흔든다고 판단한 이에야스는 키리시탄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키리시탄 금교령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sup>68)</sup>

이에야스는 1612년(慶長 17년) 3월말, 우선 직할령인 순푸(駿府)에 대해 키리시탄 금지령을 내렸으며, 4월 21일에 교토에, 9월 1일에는 교토를 포함한 나가사키에도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1614년1월 이에야스는 콘치인(南禪寺金地院)승려인 수우덴(崇伝)에게 금교령을 작성하게 하여 아들인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의 이름으로 공포하게 한다. 이것이 소위 게이초 금교령(慶長禁教令)<sup>69)</sup>이다.

1614년 11월 키리시탄 의 대추방령이 이루어져 일본의 키리시탄 148명이 나가사키에서 마카오와 마닐라를 향하여 추방당했는데 그중에는 우콘(高山右近)과 타다도시(内藤忠俊)등 키리시탄 영주도 포함되어 있었다.<sup>70)</sup>

1616년 7월에 마닐라 갈레온 무역에 관심 있던 이에야스가 75세에 사망하고 2대 쇼군 히데타다(秀忠)가 등장하면서 키리시탄의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무역에도 엄격하게 제한을 가했다. 히데타다는 포르투갈선의 일본입항에 의한 포교 활동을 우려하여 우라가를 폐지하고 나가사키와 히라도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 선박의 출입은 나가사키(長崎)와 히라도(平戸)의 2개의 항구만으로 제한되었다.<sup>71)</sup>

66) 外山幹夫著 『長崎奉行 江戸幕府の耳と目』 中央公論社 1988.12

長野暹編 『街道の日本史50 佐賀・島原と長崎街道』 1997. 吉川弘文館

67) 테우스호로 알려졌던 배의 본래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노사 세뇨라 그라샤((Nossa Senhora da Graça) 인 것으로 알려졌다

68) C.R Boxer, Notes on the Portuguese trade in Japan during the Kwanei period (1624-1643)', Shigaku, organ of the Keio Historical Research Society (hereafter KHRS), 1 (1963).pp4-7

69) 岩生成一.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177

70) 片岡 弥吉, 浦上四番崩れ—明治政府のキリシタン弾壓, ちくま文庫, 1991. p23

71) 張慧珍, 徳川家康の駿府外交体制—駿府外交の構想について, 『WASEDA RILAS JOURNA

1621년, 포르투갈선의 나가사키 입항은 6척이며, 그 적하는 네덜란드 가격으로 300만 플로린(florin)이상, 일본 銀으로 환산하면 약 8,423貫의 건적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히라도(平戸)의 상관장인 캄프스(Leonaldo Campus)의 1622년의 기록에 의하면, 포르투갈 무역선은 일본으로부터 매년 평균 銀 약120-150만 두카트, 즉 연평균 1만2,000-1만 5,000관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72)</sup>

1622년 사카이(堺)의 상인 히라야마(平山常陳)의 무역선에 마닐라에서 선교사2명이 잠입해 있다가 적발당해 히라야마와 선교사등 14명이 처형당했다. 이것이 元和大殉教 이다.<sup>73)</sup>

1623년 히데타다의 뒤를 이어 이에미즈(家光)가 3대 쇼군 직을 이으면서 막부는 포르투갈인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 및 일본선의 선원이 되는 것과 일본인의 마닐라 도항을 금지했다. 마닐라로부터 탁발 수도회를 중심으로 선교사가 계속해서 일본으로 잠입해 오기 때문에 막부는 1624년에는 스페인 왕국 필리페 4세(1621-1665재위)의 즉위를 고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한 필리핀 사절의 에도막부의 인사 및 거래를 금지해 이것으로 마닐라와 스페인과의 국교를 전면적으로 단절하였다.

1635년에는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해외정주일본인의 귀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가사키의 바다를 메워 인공섬인 데지마(出島)를 완성시켜 포르투갈인 들을 이곳으로 이전시켰다.<sup>74)</sup>

히라도 네덜란드상관의 분개장에 의하면, 1635년 네덜란드선 7척은 銀 3,600관, 銅 26만 9,173근, 동전 1,350만개, 그 외 총액으로 299만 4,372 플로린(florin) 을 수출했다. 즉, 이 당시의 포르투갈 무역선의 은 수출량은 네덜란드선의 약 6배반이며, 포르투갈선의 수출한 은의 가액은 네덜란드선의 일본품의 수출총액의 약 2.2배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75)</sup>

1637년 12월에는 키리시탄의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이 일어나고 5개월 뒤인 1638년 4월에서야 겨우 진압하면서 키리시탄은 국가전복을 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막부는 키리시탄의 단속을 강화하여 키리시탄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宗門改를 실시하였고 모든 사람을 절에 소속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불교도인 것을 절이 증명하는 데라우케(寺請)制度가 실시되었다.<sup>76)</sup> 1년 뒤

L』 NO.1,2013,p18

72)山脇悌二郎稿 「近世の対外関係 (森克己他編 『大系日本史叢書5対外関係史』 山川出版社、1978,p.124-29

73) 浅田毅衛, 鎖国政策下の日本貿易. 『明大商学論叢.』 82卷1号,p36

74) 浅田毅衛, 『鎖国政策下の日本貿易』. p37

75) 山脇悌二郎稿 「近世の対外関係」 (森克己他編 『大系日本史叢書5 対外関係史』 山川出版社,1978,pp.124-129.

인 1639년에는 포르투갈의 무역을 금지하고 그리스도교국가와의 국교와 무역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스도교와 관계가 없는 네덜란드와 중국의 무역선만이 왕래가 이루어졌다.

## V. 예수회 선교사의 2개의 얼굴-성직자와 무역인

### 1. 재무담당신부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의 역할

예수회는 수도회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예수회 회헌(會憲)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예수회는 일본의 포교(전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교회, 수도원, 신학교인 코레지오(colegio), 병원, 전도소 등의 약 200개를 넘게 보유했으며, 신부, 수도사, 도주쿠(同宿)<sup>77)</sup>등을 보살피는 사용인등 약 50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다. 또한, 가난한 자에 의한 자선, 선교지역에서의 각 영주에 대한 선물과 교통비등을 포함하면 연간 약 1만 2,000두카트(ducat)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였다. 이정도 거액을 일본 예수회만으로 자립적으로 보충하기는 불가능 하였다.

여기에서 아루마상계약(armação contract)을 기초로 마카오-나가사키무역 간의 포르투갈상선에 의한 생사무역에 관여해 막대한 이익금을 일본예수회의 경비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이 생사무역에 관한 생사의 가격결정권을 예수회가 갖고 마카오는 물론, 예수회에서 막대한 이익이 계상되었다.<sup>78)</sup> 이처럼 매년의 생사무역에 의한 수입의 변화는 예수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 생사무역이 시작된 것은 포르투갈의 상인인 루이스 데 알메이다(Luís de Almeida)가 일본에서 1556년에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회가 생사무역을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카브랄(Francisco Cabral)은 1571년 9월6일의 서한에서 “이루만<sup>79)</sup>(irmão, 伊留滿) 루이스 데 알메이다가 약 5,000쿠루사드의 거액을 갖고 입회하면서 이 돈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마카오)에서 악덕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이 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예수회내부에서 초기의 청빈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탄하

76) 朴沢 直秀, 近世後期における寺檀関係と檀家組織 : 下越後真宗優勢地帯を事例として, 『史学雑誌』史学会 104卷6号, 1995年6月, pp1119-1121,

77) 신부나 수도사보다 등급이 낮은 일본인 전도계급

78) Jose alvarez-taladriz, マカオ・長崎間貿易船のアルマサン契約に関する1610年の資料,(野間一正訳) 『キリシタン研究』 第12輯,キリシタン文化研究会 ,p372

79) 신부보다는 아래계급인 보조수사급, 기독교에서는 전도사격임

고 있다.<sup>80)</sup> 또한, 1570년 일본예수회가 소속하고 있던 인도의 고아(Goa)관구의 관구장이 예수회총회장 인 비레라(Vilella)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이 도착하였다.

생사무역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점점 커져서 20,000 쿠루자드(cruzado)의 저축이 생겨 인도의 관구장의 이름으로 12,000 쿠루자드가 인도로 보내졌다.<sup>81)</sup>

12,000 쿠루자드가 보내진 것은 인도의 몇 개의 마을을 자산으로서 취득하여 선교를 위해 자금을 불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두개의 서신에서 나타난 일자를 보면 일본예수회의 생사무역은 1550년대 후반이나 1560년대 초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81년에 인도의 고아의 관할구역인 나가사키가 準관할구역으로 승격하면서 일본의 準관할구역장의 다음 지위의, 재무담당 신부인 프로쿠라도르(Procurador)를 배치하고 있었다.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의 직무는<sup>82)</sup> 일본예수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조달과 보급과 금이나 은의 보급과 보관 및 각종 장부의 작성, 그리고 수입 및 지출상황의 감사 및 자산의 증대에 관한 직무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포교(전도)자금의 부족으로 생사를 포함한 일반무역의 관리와 일본인의 마카오 교역에 대한 중개 알선, 그리고 나가사키에서의 팡카다(pancada 가격)의 결정에 대한 개입 등이 포교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자리는 포교(전도)비용의 보충과 생사무역개입 등이 필요한 자리로 다른 직무와는 달리 사제로서 고도의 정치적·경제적인 수완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 2. 재무담당신부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의 무역개입

팡카다(pancada) 가격의 결정에 대한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의 개입은 표면으로서는 금지되고 있었지만 일상적으로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교사 조안·로도리게스는 1601(게이초 6)년 이에야스로 부터 교역에의 참가면허장을 받아 팡카다가가격의 통역및 조정에 대해 개입하고 있었다.<sup>83)</sup>

예수회는, 주로 마카오와 일본과의 사이의 교역에 여러가지 형태로 관련되

80) 高瀬 弘一郎,『キリタン教会の貿易収入額について』,『社会経済史学』 40(1), 1-24, 1974, p3

81) 高瀬 弘一郎,『キリタン時代、インドにおける日本イエズス会の資産について(上)』,『史学』 46(1), 1974 慶応義塾大学, p45

82) 高瀬弘一郎著,『キリタン時代の研究』, p529

83) 岡 美穂子,『近世初期の南蛮貿易の輸出入品について』,『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18号, 2008年3月, p57

어 왔지만, 그 주 형태는 자기 자금에 의한 교역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회의 신용을 이용하여 일본인으로부터 銀을 빌려(投銀), 특정의 물건을 매입하는 교역의 중개 알선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카오의 생사 무역에의 적극개입 이었다.

예수회의 초기의 교역에 대해서 카브랄 (Francisco Cabral)의 1583년 10월 5일자 마카오발총회장 앞 서한에는, 마카오에서 ‘일본의 프로쿠라도르(Procurador)인 선교사 소아레스(Miguel Soares)는 콜레지오(colegio)내에 자신의 거래의 사무실이 있어 그곳에서 상품의 출납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중국상인도 빈번히 출입하고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sup>84)</sup>

프로쿠라도르(Procurador)가 실시하는 교역은 예수회 공인의 교역이었지만, 그 사무소는 파테렌(선교사)의 거래소라고 불렀을 정도로 생사무역에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1570년 이전부터 많은 선교사가 비공인의 교역에 손을 대어 돈을 대하다보니 초기의 청빈한 기풍을 잃어, 일반상인처럼 사치의 길로 빠져 들고 있었다.

1590년 8월, 바리나노가 소집한 제2회 일본 예수회 전체 협의회의 기록에는 일본이 예수회가 실시하고 있는 교역 모델을 나타나고 있다.<sup>85)</sup>

「일본 향로를 향해하는 중국인들의 범선으로 항상 일정액수의 자산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1만-1만 2000 크루자드(cruzado)의 이상이었다. 그중 3,000 크루자드는 일본 예수회가 유지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 그 외 모든 포교(전도) 시설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의복을 위한 면직물·면직물·모직물을 사는데 소비하였으며 그 나머지의 돈으로 50 피컬의 생사와 약간의 돈을 매입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챙겼다. [중략] 이 투자에 의해서 매년 대개 3,000 크루자드 까지 이익이 생겼다」

이러한 교역의 거래액이나 이익은 꽤 큰 폭으로 변동하지만, 대개 연간 거래액 9,000-12,000크루자드 인데 거래이익은 4,000-8,000크루자드이고 이익율은 30-50%를 차지하였다. 이 정도의 이익금은 예수회의 연간 경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액으로 예수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에 대한 무역의 중개 알선은, 가톨릭 포교의 초기부터 행해져 왔다. 당시 마카오에서는 일본인이 마카오에서 교역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예수회 선교사에게 그 알선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 이었다. 예수회

84) 高瀬弘一郎著 『キリタン時代の研究』, p272

85) 高瀬弘一郎著, 전계서, p.610

에서도 이렇게 마카오의 무역에 개입하면서 생사무역에 관심이 많은 큐슈지역의 영주들의 환심을 사면서 포교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예수회의 재무 내용의 악화, 일본 예수회 수뇌의 방침의 전환, 국내 정세의 변화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7 세기 초부터 생사의 중개 무역이 일본예수회의 중요 수입원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회가 막부로부터 이런 종류의 의뢰를 받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일본 예수회의 재무 내용이 악화되면서 포교자금의 부족으로 고민하였을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의 일본예수회의 재무담당역할은 准관할구역장 프란시스코·파시오(Francisco Pasio)와 재무담당신부(Procurador)였던 조안·로드리게스(João “Tçuzu” Rodrigues)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인을 포교하는 것 보다는 생사무역으로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선교사의 청빈함보다는 무역 중개 알선으로 인해 거액이 생기면서 상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sup>86)</sup>

이것뿐만 아니라 1620년대 예수회선교사 들의 퇴폐상은 성경중심의 가난한 선교사의 역할보다는 거액을 취급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거상처럼 사치스럽게 행동하여 가톨릭 포교에 대한 열의는 없어져가고 있어 선교사의 무역개입 활동은 예수회뿐 아니라 탁발수도회의 비판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교대상인 일본의 막부 및 영주들까지도 예수회신부의 사치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일본인들을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I. 맺는말

1571년부터 시작된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무역, 포교 그리고 문화적소통의 상호관계가 혼합된 복합적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더욱 중요한 요인은 중국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사이에 이뤄진 국제적인 정치경제적인 무역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16세기와 17세기에 등장한 마카오와 나가사키무역은 일본인과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포르투갈인에 의해 이뤄진 중개무역이었으며 그 무역의 주체는 생사(生糸)였으며 상업적인 중요성 그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생사무역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등장하는데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가 1602년 설립되면서 동방무역에 진입하고 1603년에 포르투갈의 무역선을 나포

86) 高瀬弘一郎, キリタン時代の日ポ外交におけるイエズス会宣教師. 『史学』 三田史学会. Vol.70, No.1, 2000年 9月, pp.73-76

하여 생사를 포획하여 이를 암스테르담으로 가져가 암스테르담을 유럽의 생사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포르투갈은 1543년부터 진출하였지만 1549년의 사비에르의 등장으로 무역과 종교의 일체화로 이뤄져 무역이 시작되었지만 1570년에 나가사키를 예수회에 기증하면서 1571년에 나가사키항구가 개항되면서 마카오-나가사키는 포르투갈의 아시아간 무역의 한 루트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보고 등장한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동방무역으로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포르투갈의 아시아간무역이 아니고 나가사키-자카르타-말라카-케이프타운-암스테르담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유럽 간의 무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노부나가를 거쳐 히데요시로 정권이 바뀌면서 예수회의 무역개입과 정치개입으로 파테렌 추방령으로 위축되지만 중국의 비단에 관심이 많았던 히데요시의 암묵적 후원으로 생사무역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등장한 도쿠가와는 무역을 중시하여 그리스도교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네덜란드의 등장으로 그리스도교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가정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의 쇠퇴와 함께 종교보다는 무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네덜란드동인도회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축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마카오-나가사키무역은 마카오의 아루마상(armação contract: 対日生糸貿易組合)에게 배워 도쿠가와 막부는 수입 카르텔로서의 이토왓푸나카마(糸割符仲間)를 만들게 하였고 여기에 중개인으로서의 재무담당 선교사격인 프로쿠라도르(Procurador)가 일본예수회의 포교를 위한 전도비 구실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예수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이러한 선교사의 생사무역 개입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전도 및 엄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신부가 아닌 무역중개인으로서의 상업중시경향은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김동엽(2011)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2호, pp.22-23.
- 이덕훈(2014) 「글로벌무역으로서의 마닐라 갈레온무역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역」 『일본문화학보』 제62집, p.264.
- 이덕훈(2014) 「대항해시대의 일본의 남만무역과 그리스도교」 『기독교문화연구』 19집,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p.20.
- 이덕훈(2014) 「스페인 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권 4호, p.252.
- 이덕훈(2015) 「네덜란드의 동방무역과 동인도회사의 발전과 역할」 『경제연구』 20집, 한남대학교경제연구소, p.26.
- 加藤栄一(1967) 「成立期の糸削符に関する一考察」 (貨月圭吾先生還曆記念会編 『日本社会経済史研究』 近世編, pp.68-70.
- 岡本良知(1932) 『長崎開港以前欧舶来往考』 日東書院, p.13.
- 岡美穂子(2008) 「近世初期の南蛮貿易の輸出入品について」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18号, 2008年3月, p.57.
- 高瀬弘一郎著(1977) 『キリシタン時代の研究』 岩波書店, p.28.
- 高瀬弘一郎(1974) 「キリシタン教会の貿易収入額について」 『社会経済史学』 40(1), pp1-24,
- 高瀬 弘一郎(1982) 「マカオ=長崎間貿易の総取引高・生糸取引量・生糸価格」 『社会経済史学』 48卷 1号, 社会経済史学会, pp.51-84.
- 朴沢直秀(1995) 「近世後期における寺檀関係と檀家組織 : 下越後真宗優勢地帯を事例として」 『史学雑誌』 史学会 104卷6号, pp.1119-1121.
- 松竹秀雄(1989) 「朱印船時代とそれ以後の長崎の海外貿易 (1)」 『経営と経済』 長崎大学経済学会. p.165.
- 山下洋輔(2008) 「高山右近の寺社破壊に関する一考察」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15卷2号.
- 山脇悌二郎稿(1978) 「近世の対外関係 (森克己他編)」 『大系日本史叢書5対外関係史』 山川出版社, pp.124-29.
- 小島幸枝(2002) 『長崎代官村山等安その愛と受難』 聖母文庫, 聖母の騎士社, pp.28-32.
- 外山幹夫著(1988) 『長崎奉行 江戸幕府の耳と目』 中央公論社. 12.
- 岩生成一(1985) 『朱印船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177.
- 栗原 福也(1982) 「連合東インド会社と生糸」 『史論』 35, 東京女子大学 pp.40-55.
- 若土正史(2013) 「ポルトガルにおける大航海時代の海上保険と日本」 『海事交通研究』 62券, pp.83-92, 山県記念財団.

- 張慧珍(2013) 「徳川家康の駿府外交体制—駿府外交の構想について」 『WASEDA RILAS JOURNAL』 NO.1, p.18.
- 中田易直(1977) 「糸割符仕法の起源」 『中央史学』 創刊号, 中央大学文学部, pp.3-8.
- 幸田成友(1942) 『日欧通交史』 . 岩波書店, p65.
- Angus Maddison(2001) *The World Economy : A Millennial Perspective Paris*: OECD Publications, p.63.
- Anthony Reid(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n: Expansion and crisis*, xv,.390 pp.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9-10.
- Charles Ralph Boxer(1959) *The Great Ship from Amacon—Annals of Macao and the Old Japan Trade, 1555-1640*, Lisbonne, Centro de Estudos Historiées Ultramarinos.
- Dennis O. Flynn; Arturo Giraldez(1996) *Silk for Silver: Manila-Macao Trade in the 17th Century*, *Philippine Studies* vol. 44, no. 1: 52 - 68.
- Jan Kieniewicz (1969), “The Portuguese Factory and Trade in Pepper in Malabar during the 16th Century,”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6: 61-84.
- João Paulo Oliveira e Costa(2000) *A Route Under Pressure Communication Between Nagasaki and Macao. (1597-1617)*. New University of Lisbon.
- Jose alvarez-taladriz(1967), マカオ・長崎間貿易船のアルマサン契約に関する1610年の資料,(野間一正訳) 『キリシタン研究』 第12輯,キリシタン文化研究会, p.372.
- Kerry Ward(2009) *Networks of Empire: Forced Migration in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6-128.
- Michael Cooper(1972) *The Mechanics of the Macao-Nagasaki Silk Trade, Monumenta Nipponica*, Vol.27, no.4, p423, Sophia University.
- Natália Tojo(2000) *THE Anxiety of the Silent Traders. Dutch perception on the Portuguese banishment from Japan. Bulletin of Portuguese Japanese Studies*, Universidade Nova de lisboa, pp111-128.

## Abstract

---

The 1570s was an important period in the world trade history. Both Manila Galleon trade that began in 1571 and Nagasaki harbor that opened in 1571 focused on the Macau-Nagasaki trade. These are connected by the China's single whip tax reform that started in 1570s.

The single whip tax reform is a tax system that the tax payment of several methods were unified to be paid in silver, which were able to the first step of globalization among Europe, China, India, Japan and Southeast Asia. In this period, one of West-East trades was Macao-Nagasaki Trade composed of several characteristics, such as trade, propagation, and cultural communic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rade among China, Japan, Portugal, Spain, and Netherlands.

キーワード : Macau-Nagasaki trade, single whip tax reform,  
Manila Galleon trade, first step of globalization, West-East trades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